

일 년 열두 달 인디언의 지혜와 격언 대평원 너머로 들리는 영혼의 두드림



인디언의 속삭임

김옥동 지음

“우리가 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또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을 주고, 슬픔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을 준다.”(추장 비클 라우드의 연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명문 학교 학생들의 비밀 회합 장소는 인디언 동굴이다. 이곳에서 그들은 소로의 ‘월든’ 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갑갑한 기숙사를 나와 인디언 동굴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시를 읊는 학생들은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한다.

미국 원주민으로 칭하는 인디언과 캐나다의 첫 번째 민족들이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책이 나왔다. 영문학자이자 생태문학자인 김옥동 교수가 펴낸 ‘인디언의 속삭임’은 일 년 열두 달 인디언의 지혜와 격언이 담겨 있다.

책에는 인디언들의 격언과 기도, 축사, 연설 등 다양한 글을 모은 60여 편이 역사적 배경과 함께 담겨 있다. 새로운 해석이 추가돼 있어 현대인들을 위한 철학적 생각거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

생태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날, 인디언들은 일찍이 미래를 내다보며 자연과 인간을 존중하는 시각을 견지했다. 이들의 인사말 “미카쿠에 오아신(Miracuye Oyasin)”에는 “우리 모두 연결돼 있다” 뜻이 담겨 있다. 상호 연관성에 대한 관심은 파괴된 자연을 되돌리고 위기에 놓인 자연환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의로 읽힌다.

유럽 이주자들은 경제 발전과 산업화의 이름으로, 더러는 종교 전파와 문명화라는 목적으로 원주민들을 쫓아냈다. 백인 개척자들에게 북아메리카 대륙은 착취와 소유의 땅이었지만, 인디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집이었다.

특히 인디언들의 세계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상상력을 발휘해 매월 달의 이름을 정했다. 어떤 부족은 한 해를 열세 달로 나누었고 어떤 부족은 스물네 달로 나누기도 했다. 계절이 변하는 동안 주위 풍경의 변화 또는 이러한 변화를 겪는 내면 풍경을 주제로 달의 이름을 붙였다. 그 예로 ‘1월’이 아리카라 족에게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이라면 아파라족 족에게는 ‘바람 속 영혼처럼 눈이 흘날리는 달’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알게 하소서 / 달이 떠 있을 때 오레도록 / 강물이 흐르듯이 오레도록 / 태양이 빛나듯이 오레도록 / 풀이 자라듯이 오레도록 / 우리에게 평화를 알게 하소서”(‘사이에 축의 기도’)

〈세미콜론·1만7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속담은 한 문장의 우화, 삶의 폭죽 같은 깨달음



우리말 절대지식

김승웅 지음

속담 ‘시렁 눈 부채 손’은 어떤 의미일까? ‘안목은 높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는 없다’는 뜻이다.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오는 격언이나 잠언’으로,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터득한 지혜와 경구(警句)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치밀한 문화말살 정책과 한국전쟁, 서구 문화유입에 따라 많은 속담들이 일상에서 사라지다시피 했다.

에는 속담 3091개가 실려 있다. 저자는 9년 동안 발품을 팔며 속담을 수집해 ‘흔한 단담 풀이가 아닌 지나칠 만큼 친절한’ 속담 책을 만들었다. 어머니를 비롯한 어른들과 농민들의 대화에서 뜻하지 않은 속담을 듣고 ‘황급하게 기록하고 신중히 자판을 두드렸다’고 한다. 이 책에는 비슷한 속담과 요즘 새롭게 만들어진 현대속담까지 아우르고 있다. 다양한 예시와 설명, 이야기, 사진을 통해 속담을 해석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속담은 한 문장의 우화다. 삶의 폭죽 같은 깨달음의 이야기다. 그리고 지혜와 삶의 압축된 과일”이라고 말한다. 속담을 하나 하나 호명하듯 읽으며 우리말의 성전(盛典)속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재발견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2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연애 코칭 시대...2천년을 이어온 ‘작업의 정석’



사랑의 기술

오비디우스 지음

연애도 코칭의 시대다. 배우야 하고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시대다. ‘연애학교’가 생기고 전문 컨설턴트가 있는 걸 보면 ‘연애’도 ‘전문영역’인 것 같다. 시중에는 연애 서적이 봇물을 이루고 연애 전문가들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아무리 연애 담론이 넘쳐나고 전문가들의 조언이 그럴 듯해도 고대 로마시대 문인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을 넘어서지 못한다. 오비디우스의 통찰과 깊이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신화연구가이자 그리스학 연구학 부소장인 김원익 씨가 편역한 ‘사랑의 기술’은 ‘이천년을 이어온 작업의 정석’을 담고 있다. OtvN 비밀독서단이 주목할 만큼 주제가 보편적인 데다 내용 또한 알차다.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은 플라톤의 ‘향연’이나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과는 결이 다르다. 철학적이거나 고차원적인 경식을 논하지 않는다. 물론 전박한 성적인 테크닉을 늘어놓지도 않는다. 누구나 한번쯤 사랑에 빠져 본 이들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연애할 때 남녀의 심리를 자신의 경험과 인간의 일상생활과 견주어 사례를 든다. 특히 연애할 때 생기는 다양한 문제와 심리적인 갈등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매개로 풀어낸다.

오비디우스는 “햇병아리 신병으로 에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 아프로디테는 태초에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토대로 그린 그림이다. 〈메티스 제공〉

로스 군대에 갓 입대한 사람이라면, 우선 사랑의 대상을 물색해야 한다”면서 “다음 임무는 선택한 여자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임무는 연애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젊어서든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열 번 짝이 안 넘어가는 여자가 없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방법들은 요즘에도 통용되는 일반적인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여자의 최측근을 활용하라. 선물과 편지를 자주 보내라. 작업 걸 시점을 잘 선택하라. 술자리를 이용하라. 아낌없이 칭찬하라. 무조건 약속하라.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하다. 거짓 눈물을 흘려라. 작전상 후퇴도 필요하다. 최대한 불쌍하

게 보여라. 친구를 조심하라. 변신의 귀재가 되라.’

다음으로 어렵게 얻은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한다.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비디우스의 충고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외모에 신경쓰기보다는 교양을 쌓고, 부드럽게 대하고, 노예처럼 굴고, 아낌없이 선물을 하고, 시를 지어 보내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아플 때를 활용하고, 속도 조절을 하고, 외도는 극비로 부치고, 여자와의 일을 떠벌리지 말고, 여자의 질투심을 유도하고, 신체의 단점을 들추지 마라.’

오비디우스는 충고의 대상을 남자에 게만 한정하지 않는다. 여자들에게 남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친다. “여자들의 몸은 가꾸어야 아름다워지

는 법이지만 화장은 혼자서 은밀히 하고, 신체의 단점은 감추고, 노래와 시와 춤을 겸비하고, 자주 모습을 보이고, 남자들의 애를 태우고, 절대 화를 내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명랑해야 하고, 나이에 따라 다르게 대처하고, 쉽게 허락하지 말고, 남자의 라이벌을 활용하고, 친구들을 조심하고,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이렇듯 오비디우스는 프로이트나 융과 같은 현대의 심리학자들보다 앞서 심리학을 통해 인간 심리를 설명한다. 사랑이란, 암암히 말하면 세상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력 간 충돌과 음모 앞에 개인의 삶은 이용당하고 희생되기 일쑤다.

그럼에도 드는 생각, 과연 사랑을 하는 데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까, 기술만 강조되고 본질이 외면되는 것 같아 다소 씁쓸하다. 〈메티스·2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 잔 술과 함께 즐기는 대륙의 문화 향기

술로 만나는 중국 중국인

모종혁 지음

중국 지방과 도시마다 특색 있는 명주가 존재한다. 물론 그 이면에는 흥미로운 레시피와 스토리가 숨겨 있다.

중국 명주를 통해 14억 중국인들과 만나는 책이 나왔다. 중국의 총칭과 쓰촨에 거주하고 있는 모종혁 씨가 펴낸 ‘술로 만나는 중국·중국인’은 오랜 중국 생활과 취재로 얻은 경험을 담은 교양서다. 책은 ‘이코노미스트’ 등에 연재한 결과물로 당시에 적잖은 인기를 끌었다. 저자는 중국의 내로라하는 명주가 물



러 있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이려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47개 도시와 9개 소수민족을 선정했다. 술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20여 명의 중국인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한다. ‘죽통주’, ‘시선대백’, ‘산썬주’, ‘장미술’, ‘미주’, ‘마오타이’, ‘산화주’, ‘외룡주’, ‘칭다오맥주’ 등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표적인 술이 등장한다. 〈서교출판사·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마흔 살 건달의 짝내나는 인생 이야기

뜨거운 피

김언수 지음

2006년 문학동네소설상 수상작 ‘개비닛’, 2016년 프랑스로 문학대상을 후보 ‘설계자들’로 문단에 이름을 각인시킨 김언수 작가의 신작 장편이 출간됐다.

소설은 1993년 봄과 여름의 이야기이다. 마흔 살 건달의 짝내나는 인생이 부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주인공 희수는 만리장 호텔 사장이자 구암 암혈가 보스인 손영감의 오른팔로 우물증을 앓고 있다. 건달로 사는 데 염증을 느끼고 구암 바다를 지극지극하

하지만, 달리 갈 곳도 딱히 비라는 삶도 없다. 희수는 20년 간 보스 손영감을 떠나 새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사랑해온 여자와 그녀의 아들과 함께 잠시나마 가족을 꾸리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나 폭력 조직이란, 암암히 말하면 세상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세력 간 충돌과 음모 앞에 개인의 삶은 이용당하고 희생되기 일쑤다. 〈문학동네·1만6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신기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툴로 그래픽이 간단하게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 잔 멘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